

광주 미술관·박물관 해외 교류 활발

중·일·미·프랑스 등과 네트워크 강화 ... 작품 전시·학예사 파견

지속적인 예산 지원 실질 성과 거둬야

최근 광주지역 미술관과 박물관이 외국 미술관들과의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 시립미술관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대만 미술관과 잇따라 교류를 추진한 데 이어 국립 광주박물관과 우제길 미술관도 중국과 프랑스 미술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해외진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는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역작가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지역 상업 화랑이 거의 없어 이들 공립미술관들이 사실상 해외창구 역할을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 미술관들과의 인적 교류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려는 현실적인 이유도 크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하 시립미술관)은 최근 팔각정·양산동 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을 대상으로 대만국립미술관 타이페이 창작스튜디오 교환 작가를 선정하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대만국립미술관 해마다 2명의 작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오는 7월 타이페이 창작스튜디오에 광주지역 작가 2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광주지역 작가가 세계 미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현지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시립미술관은 지난 2003년 뉴욕 퀸즈미술관과 작가 교류협약을 맺고 교환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2003년 뉴욕 퀸즈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한국화가 김대원, 홍성담, 김영삼, 하철경씨 등이 참가했으며 이듬해인 2004년 광주 시립미술관 전시에는 빌리 등 6명의 뉴욕출신 작가와 박소빈 등 3명의 광주작가가 합동 전시회를 열었다. 또 2005년에는 중국 광저우에 미술박물관과 교류 전시 협약을 맺고 황영성, 우제길, 정승규씨 등 지역작가 20명이 중국 현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사람미술관인 우제길미술관(관장 우제길)도 프랑스의 센느 마리팀(Seine Maritime)도(道)와의 교류협약에 따라 오는 7월 광주에서 국제관화워크숍을 갖는다. 지난해 프랑스 루앙(ROUEN)에서 개최한 '코렐라 시옹(CORELATION)'전에 이은 국내 전시회다. 당시 전시에는 프랑스의 파스칼 지라르, 티부르 뵈 등 5명의 광주에서는 우제길, 김익모, 강행복, 노정숙, 김삼연씨 등이 참가했다. 올해 광주 전시에는 티부르 뵈 등

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도 지난달 29일 중국 절강성박물관과의 '문화교류 협약서' 체결에 따라 최근 일부 학예원들을 중국에 파견했다. 광주박물관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매년 2~3명의 연구 인력을 중국의

로 보낼 계획이다. 절강성과 전남지역은 동서교역로 선상의 바닷길에 위치하고 있어 절강성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전남의 고대 연구에 가치가 크다. 절강성에는 고인돌이 많이 분포돼 있어 전남지역과의 교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고대자료가 전남지역 고인돌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들 미술관의 해외 교류사업이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끝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제길 관장은 "해외 교류는 작가들의 항공료, 체류비 등 부담이 커 대부분 교류가 2~3년 내에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 작가들의 해외 진출과 이들 기관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지역 미술관과 박물관이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외국 미술관들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우제길미술관과 프랑스의 센느 마리팀(Seine Maritime)도(道)가 공동주최한 '한불 관화교류전' 모습. <우제길 미술관 제공>



'고집쟁이 딸' 중 나막신의 춤.

광주시립무용단 '갈라콘서트'

27일 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무용단이 2008년 갈라 콘서트를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 중 '고집쟁이 딸' 중 리본춤과 나막신의 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들이다. 프레보의 소설이 원작인 '마농'은 '최고의 드라마틱 발레'로 꼽히는 작품으로 이날 선보이는 장면은 주인공들의 관능적인 비장미가 흐르는 2인무다.

'발레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마츠 에크의 과격적인 안무가 화제를 모았던 모던 발레 '카르멘' 역시 광주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되는 작품이다.

그밖에 숲집 여주인을 뜻하는 '라 비벤디에르' 중 6인무, 장난감 가게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요정 인형' 중 3인무,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전주곡을 배경으로 한 이영애 단장 안무의 창작 발레 '달빛' 등을 선보인다. 박선희·오윤환·김선돈·박정교·정정은·조나경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



직장인 극단 DL '낙하산' 공연

28일 공동예술극장

지난해 12월 '굿 닥터'로 찬란 공연을 가졌던 광주 최초의 직장인 극단 'DL(Dramatic Life)'이 두번째 정기 공연을 갖는다. 28일 오후 4시~7시 공동예술극장.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빈아 파트를 맡기 위해 모여든 세 쌍의 도둑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 가는 소시민들의 꿈과 고민을 그린 휴먼코미디 드라마 '낙하산' <사진>.

백일파티를 위해 빈집을 노린 10대 도둑, 집도 절도 없으면서 쌍둥이까지 둔 어설픈 30대 도

둑, 간암 말기 60대 도둑 두 세 쌍의 도둑이 벌이는 좌충우돌 해프닝이 웃음을 준다. 박정민·최주현·양선희·박원주·윤혜정·김보영·김미경씨 등이 출연하며 김은광씨가 연출을 맡았다.

지난해 6월 극단 '연인'의 대표 김종필 씨가 인터넷에 단원모집 공고를 내면서 첫발을 딛은 극단 DL(다음 카페 cafe.daum.net/DramaticLife)은 현재 대학원생, 회사원, 교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20~30대 회원 10여 명의 활동중이다.

문의 019-257-4806. /김미은기자 mekim@

'언어능력 함양 신문의 역할' 세미나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읽기문화 진흥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언어능력 함양을 위한 신문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를 6월 26일(목)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신문협회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읽기문화 진흥 캠페인의 첫 행사이다. 올해 초 신문협회는 읽기문화 진흥 세미나, 읽기문화 진흥방법 제정, 종합언어능력인증센터 등 읽기문화 진흥과 관련한 3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원진숙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의 문식력 신장을 위한 국어교육의 개선방향),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해외 선진 민주국가의 읽기문화 진흥정책과 신문의 역할), ▲이연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일본의 문자·활자문화진흥법을 통해 본 신문 읽기 진흥방안) 등이 나선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명창 신영희 특별공연

27일 12시 진도향토문화회관

명창 신영희(66·사진) 특별공연이 27일 낮 12시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진도청년회회소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신씨는 남도민요보존회 회원들과 함께 민요 새타령과 관소리, 육자배기, 진도아리랑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신영희 선생이 자비를 들여 초창한 신규종(거문고 독주), 백승현(한국무용 살풀이), 최홍관·이성규·신규식(대금, 아쟁, 장구 합주) 선생도 함께 한다.

진도 출신인 신씨는 1992년 중앙무용문화재단 제5호 관소리(춘향가) 준문화재로 지정됐으며 현재 남도민요보존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진도=박형영기자 hypark@



모네 '수련' 832억원에 팔렸다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1919년작 유화 '수련' <사진>이 24일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모네 작품 가운데 사상 최고가인 8천50만달러(832억원)에 팔렸다. 이 작품은 당초 3천500만~4천700만달러(362억 원~486억원)에 팔릴 것이라는 크리스티의 예상을 깨고 2배가 넘는 8천45만1천178달러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성에게

낙찰됐다.

'수련(Le bassin aux nymphéas)'은 모네(1840~1926)가 노년에 그린 대표적인 연작이다. 모네는 프랑스 파리 북부 지베르니의 저택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갖가지 수련을 키우며 이를 다양한 작품으로 그려냈다. 그러나 생전 이들 가운데 1919년작 4점만 팔렸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

movies 인기영화 증거는 지금 보십시오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관동역사거리 ☞에메1544-0600 1관 윈티드 (18세) 최고급관 2관 강철중(공공의적-1) (15세) 3관 무림여대생 (15세) 4관 강철중(공공의적-1) (15세) 5관 크로싱 (12세) 6관 갯스마트(12세)/갯파쿠와여름방학(연세) 7관 섹스앤더시티 (18세)/크로싱 (12세) 8관 쿵푸팬더 (연세) 9관 윈티드 (18세)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크로싱 (12세) 2관 쿵푸팬더 (연세)/인디애나존스 (12세) 3관 무림여대생 (15세) 4관 해프닝 (18세)/인크레더블힐크 (15세) 5관 윈티드 (18세) 6관 돔스데이 (18세)/다이아 (15세) 7관 강철중 (15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4극의 주차장 300대 * *관로 심야상영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로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화관 뒷편) ☞에메:www.joybox.com/1588-7941 상무점·해남점 1관 강철중 (15세) 2관 인디애나존스 (12세)/해프닝 (18세) 3관 강철중 (15세) 4관 강철중 (15세) 5관 크로싱 (12세) 6관 갯스마트(12세) 7관 도화선(18세)/쿵푸팬더(연세) 8관 돔스데이 (18세) 9관 윈티드(18세)/섹스앤더시티(18세) 10관 인크레더블 힐크 (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점 (10개관) *점심 상영중 *순천역 앞 *12시~2시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윈티드 (18세) 2관 강철중 (15세) 3관 크로싱 (12세) 4관 쿵푸팬더 (연세) 5관 무림여대생 (15세) 6관 갯스마트 (12세)/ 윈티드 (18세) 7관 강철중 (15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 이동편의사 할인혜택 * * 씨너스저 세무니(연세시·연세시)	하미 시네마 고리시청 고리점 ☞www.hamycinema.co.kr/1588-9120 진다후문 히미포박스 ☞ 267-7777 1관 섹스 앤더 시티 (18세) 2관 강철중 (15세) 3관 크로싱 (12세) 4관 해프닝 (18세) 5관 강철중 (15세) 6관 인디애나 존스 (12세) 7관 인크레더블 힐크 (15세) 8관 윈티드 (18세) 9관 무림여대생 (15세) 10관 쿵푸팬더 (연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 매일 심야 * 이동 편의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 하미 수영장 288-5757 * 하미 북점 282-08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영빈관 예약 261-2000	제일 시네마 서문로 3가 ☞ARS 전화예약 227-1960 1관 강철중(공공의적) (15세) 2관 강철중 (15세)/ 윈티드 (18세) 3관 인크레더블 힐크 (15세)/ 윈티드 (18세) 4관 윈티드 (18세) 5관 쿵푸팬더 (연세) 6관 크로싱 (12세)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 ARS 전화예약 227-1960
--	--	--	---	---	--